

## 서울중앙지방법원

### 판 결

사건	2022고단4712, 2022고단5952(병합), 2022고단6407(병합), 2023고단686(병합)사기,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, 절도, 점유이 탈물횡령, 폭행, 재물손괴미수, 횡령
피고인	A
검사	이종민, 정거장, 이종욱, 윤재희(기소), 김범준(공판)
변호인	변호사 장유정(국선)
판결선고	2023. 6. 23.

### 주 문

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.

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.

### 이 유

#### 범 죄 사 실

#### [범죄전력]<각주1>

피고인은 2023. 4. 7.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폭행등)죄  
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. 4. 15.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.

#### [범죄사실]

## [2022고단4712]

### 1. 절도, 점유이탈물횡령

#### 가. 절도

피고인은 2022. 6. 3. 22:30경 서울 종로구 C상가 주차장에서,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틈을 타 E 신용카드 1장과 F카드 1장 및 현금 30,000원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.

#### 나. 점유이탈물횡령

피고인은 2022. 6. 14. 01: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'H카페' 앞에 피해자 I가 떨어뜨리고 간 J 카드 1장, K카드 1장, L 신용카드 1장 및 현금 120,000원 등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습득하고 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.

### 2. 사기,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
피고인은 2022. 6. 3. 23:03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'N'에서 43,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음식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, 그 때부터 2022. 6. 14. 03: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 및 횡령한 D 및 I 명의의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998,450원 상당의 물품 등의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,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.

## [2022고단5952]

피고인은 2022. 9. 20. 12:26경 서울 종로구 O 앞 길가에서, 피해자 P(남, 36세)이 피고인의 점퍼를 훔쳐가고도 이를 되돌려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.

## [2022고단6407]

### 1. 폭행

피고인은 2022. 7. 4. 19:44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길에서, 피해자 Q(여, 71세)가 자신의 우산을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며 화가 나,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의

몸을 피의자의 어깨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.

## 2. 재물손괴미수

가.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, 장소에서 피해자 Q(여, 71세) 소유의 쇼핑백을 발로 차 그 안에 있던 휴대전화 등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려 하였으나,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.

나. 피고인은 같은 날 22:0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쇼핑백을 발로 차 그 안에 있던 휴대전화 등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려 하였으나,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.

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.

## [2023고단686]

피고인은 2022. 6. 20. 19: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 탑골공원 북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로부터 “대구에서 상경하여 짐을 둘 곳이 없으니 로봇청소기를 대신 팔아주거나 잠시 맡아달라”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로봇 청소기 1대를 보관하던 중, 2022. 7. 28. 15:00경 및 2022. 8. 12. 16: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로봇청소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22. 9. 19.경까지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.

## 증거의 요지

## [2022고단4712]

###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#### 1.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

#### 1. I의 진술서

1. 입건전조사보고서(CCTV 조사), 입건전조사보고서(카드 사용내역서 첨부), 입건전조사보고서(카드 사용처에 대한 조사), 입건전조사보고서(분실카드 부정 승인내역 확인), 입건전조사보고서(카드 부정사용 CCTV 수사)

## [2022고단5952]

###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#### 1. P의 진술서

#### 1. 사진

1. 입건전조사보고서(발생지 CCTV 녹화영상 수사\_탑골공원 북문 앞 노상)

**[2022고단6407]**

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1. Q의 진술서

1. 현장사진 2장

1. 112신고사건 처리표

1. 수사보고서(CCTV 영상을 통한 피의자 폭행 혐의 추가 확인), 수사보고서(피해자 Q 전화조사)

**[2023고단686]**

1.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

1. 증인 B의 법정진술

1.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

1. 수사보고서(검사 보완수사 관련, 피의자 A 상대 수사)

[피고인은 판시 로봇청소기(이하 ‘이 사건 피해품’이라 한다)를 정릉에 있는 지인 창고에 맡겨 놓은 관계로 그 반환이 지체되었던 것일 뿐 의도적으로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어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① 피해자가 2022. 6. 중순경 이 사건 피해품을 맡긴 이후 2022. 8. 19.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그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명시적으로 반환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동안 이를 전혀 반환하지 않은 점,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관 창고의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데 특별한 장애나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, ③ 피고인은 2022. 10. 28.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피해품을 경찰에 제출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고, 그 후 경찰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관 장소에 같이 갈 것을 요구하자 그제야 자신이 직접 가져오겠다면서 2022. 11. 21. 이 사건 피해품을 경찰에 임의로 제출한 점, ④ 피고인은 정작 다른 곳에서 이 사건 피해품을 되찾아 온 것으로 보이고, 그나마도 고장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데다 리모컨도 분실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,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던 이 사건 피해품을 횡령할 의사로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]

**[판시 전과]**

## 1.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

### 법령의 적용

#### 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형법 제329조(절도의 점), 형법 제360조 제1항(점유이탈물횡령의 점), 각 형법 제347조 제1항(사기의 점),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(분실 및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), 각 형법 제260조 제1항(폭행의 점), 각 형법 제371조, 제366조(재물손괴미수의 점), 형법 제355조 제1항(횡령의 점), 각 징역형 선택

#### 1. 경합범처리

형법 제37조 후단, 제39조 제1항 전문

#### 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#### 1. 집행유예

형법 제62조 제1항

#### 1. 보호관찰

형법 제62조의2 제1항,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

#### 1. 피해자환부

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

### 양형의 이유

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환경, 가족관계, 범행의 동기, 범행의 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○ 불리한 정상: 타인의 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 및 휴대전화를 절취하거나, 혹은 분실된 물건을 습득 후 반환하지 않은 채, 위 절취 혹은 분실된 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를 수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, 나아가 노상에서 타인을 폭행하고,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며, 위탁받아 보관 하던 타인의 물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면서 이를 횡령하기도 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, 특히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4712 사건의 범행으로 2022.

6. 16. 긴급체포되었다가 다음 날 석방된 사실이 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그 후로 판시 2022고단5952, 2022고단6407, 2023고단686 사건의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것인 점, 피해자들로 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점

○ 유리한 정상: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데다, 앞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폭행등)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

판사 김봉준

별 지

## 범죄일람표(2022고단4712)

연 번	범행일시	사용 카드(명의인)	사용장소	사용금액(원)
1	22. 6. 3. 22:53	(신용카드번호 1 생략) E카드 (D)	서울 종로구 R	70,000
2	22. 6. 3. 23:03	(신용카드번호 1 생략) E카드 (D)	서울 종로구 S T	43,000
3	22. 6. 3. 23:06	(신용카드번호 1 생략) E카드 (D)	서울 종로구 U V	45,000
4	22. 6. 3. 23:20	(신용카드번호 1 생략) E카드 (D)	종로구 W X	160,800
5	22. 6. 3. 23:55	(신용카드번호 2 생략) F카드 (D)	서울 종로구 Y Z	90,800
6	22. 6. 4 00:11	(신용카드번호 2 생략) F카드 (D)	서울 종로구 S AA	87,000
7	22. 6. 4 00:20	(신용카드번호 2 생략) F카드 (D)	서울 종로구 Y Z	8,000
8	22. 6. 4 00:46	(신용카드번호 2 생략) F카드 (D)	서울 종로구 Y Z	74,950
9	22. 6. 4. 02:04	(신용카드번호 2 생략) F카드 (D)	종로구 W X	138,900
10	22. 6. 14. 01:18	(신용카드번호 3 생략) J카드 (I)	종로구 AB AC	45,000
11	22. 6. 14. 01:27	(신용카드번호 3 생략) J카드 (I)	서울 종로구 S AD	110,000
12	22. 6. 14. 03:54	(신용카드번호 3 생략) J카드 (I)	서울 종로구 AE AF	15,000
13	22. 6. 14. 03:59	(신용카드번호 3 생략) J카드 (I)	서울 종로구 AG AH	110,000
총 13회에 걸쳐 도난, 분실당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998,450원 상당의 대금 결제				

각주1: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,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,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과사실을 추가하여 인정한다.